

『韓国語教育研究』(第1号) 別刷

ISSN 2186-2044

【寄稿論文】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과 교정법에 관한 연구

강 봉식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1年9月

#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과 교정법에 관한 연구

강 봉식

日本語を母語とする韓国語学習者において韓国語の発音の習得は容易ではないことが従来よりいわれている。本稿では、とりわけパッチムと呼ばれる「韓国語の音節末子音」の発音を習得する際に起きる諸問題点について日韓両言語の音韻を比較しながら考察を行った。

パッチムの発音の問題点としては、初歩段階の問題点と初歩段階を過ぎてパッチムの発音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からの問題点という2項目に分けて分析を行った。いずれも問題点の根源は、母語である日本語の音韻の干渉によるものであるが、本稿では、母語からの干渉の具体例をあげながら、学習者が無意識的にパッチムの発音を誤ってしまう理由について音韻論の観点から考察を行い、その矯正法を提示した。

## 1. 들어가기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이하 「학습자」라고 칭함.)들이 있어서 한국어의 발음 습득이 어렵다는 점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특히 받침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 하거나 또는 그릇된 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하겠다. 이는 일본어가 기본적으로 개음절어라는 점과, 또 하나는 폐음절 역할을 하는 促音/っ/과 撥音/ん/의 음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받침 발음을 정확히 못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일본어와 한국어의 양 언어의 음운을 비교해 가며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받침 발음의 효과적인 교정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초보 단계에 있어서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

한국어의 받침 발음은 7 음 /ㄱ, ㄷ, ㅂ, ㅇ, ㄴ, ㄹ, ㅁ/으로 발음된다. 초보 단계의 학습자들은 후속음이 없을 경우의 받침 7 음을 다음과 같이 발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①악 → akk ②안 → a? ③압 → appu  
④양 → aN<sup>1</sup> ⑤안 → aN ⑥암 → amu  
⑦알 → aru

<sup>1</sup> 撥音/ん/의 음성 기호를 편의상 음운 기호 /N/로 표시했음.(이하 동)

즉, ①, ③, ⑥, ⑦의 받침 /ㄱ, ㅅ, ㄴ/을 각각 「-ック[-kku]」 「-ッ  
プ[-ppu]」 「-ム[-mu]」 「-ル[-ru]」로 발음해 각 받침 발음 뒤에  
불필요한 [-ku] [-pu] 또는 모음[-u]를 붙여 개음절로 발음하는 것이다.  
①, ③, ⑥, ⑦ 외에 ②의 받침 /ㄷ/은 「促音/ッ[ʔ]/(일본어의 음절말 후두  
폐쇄음)」으로 발음하고, ④, ⑤의 받침 /ㅇ, ㄴ/은 잘 구별을 못 해 둘 다  
「撥音/ン[N]/(일본어의 음절말 비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 후 학습자 들은 받침 발음의 연습을 통해 서서히 음절말에 모음[-u]  
등을 첨가시키지 않고도 폐음절로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폐음절 발음은 가능하게  
되지만 받침 7 음을 여전히 정확히 구별하지를 못해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경향이 돋보인다.

받침 /ㄱ, ㄷ, ㅅ/ 모두를 促音으로 발음하고, 받침 /ㅇ, ㄴ, ㄴ/ 모두를  
撥音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받침 /ㄷ/만은 음절말에  
모음[-u]를 붙이지 않고 발음하면 폐음절[-]에 가깝게 발음되므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밖, 밭, 밥」을 모두 パッ [paʔ]으로 발음하고, 「상, 산,  
삼」은 모두 サン [saN]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 중 「밭」만은  
[paʔ]음으로 발음되어도 한국어 회화에서는 별 문제없이 통용된다(이에  
대해서는 3.에서 후술함). 그러나 다른 5 음의 받침 발음은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중간적인 음으로 발음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거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 3. 促音/ッ/의 음운과 받침 발음시의 문제점

促音/ッ/은 일본어에서 일반적으로 어중(일부에서는 어말)에서 나타나는데  
음성 기호로는 성문음[ʔ]으로, 음운 기호로는 /Q(또는 T)/로 표시되는 후두  
폐쇄음을 말한다.

어말에서의 促音은 받침 ㄷ음과 유사하게 청취되는데 이는 한국어의  
후두음 ㅎ이 음절말에서 [ㄷ]음으로 발음되는 점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은 [ㄷ]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促音으로  
발음하더라도 회화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곧 コッ[koʔ]	밭 パッ[paʔ]	긋 クッ[kuʔ] <sup>2</sup>
낫 ナッ[naʔ]	돛 トッ[toʔ]	히읇 ヒウッ[hiuʔ]

<sup>2</sup> 일본어의 모음 우는 비원순 모음이므로 [u]로 표기해야 되나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표기 [u]에 따랐다. (이하 동)

그러나 促音은 후속음이 올 경우<sup>3</sup>에는 다음과 같이 후속 자음과 같은 음으로 동화되어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sup>4</sup>

- イッパイ (一杯: 한 잔) /iQpai/ [ippai]
- イトー (一頭: 한 마리) /iQto:/ [itto:]
- イッカ (一家: 한 가구) /iQka/ [ikka]
- イソク (一足: 한 켤레) /iQsoku/ [issoku]
- イチ (一致: 일치) /iQfi/ [iffi]
- イッサ (一社: 한 회사) /iQsa/ [iffa]

즉 促音은 변이음으로서 /-p, -t, -k, -s, -ʃ, -ʒ/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p, -t, -k/ 외에도 /-s, -ʃ, -ʒ/가 있으나 이 들 음은 한국어에서는 거의 받침 [ㄷ]음으로 청취되고 있다. 한국어 받침 /-p, -t, -k/는 이 들 促音의 변이음을 가지고 발음하면 될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일본어에서는 /-p, -t, -k/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후속 자음이 동일 또는 근접한 자음이어야 한다는 促音의 음운적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잡비[잡뻐], 같다[같따], 빗소리[빔쏘리/빗소리], 악기[악끼] 와 같이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이 조음 위치가 같거나 근접한 단어의 받침 발음은 일본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발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정확히 발음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의 조음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학습자 들은 받침 발음을 후속 음에 동화시켜 발음하게 되므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일부 통하는 경우도 있음.<sup>5</sup>) 아니면 아주 다른 뜻의 단어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① 받침[ㄱ]이 [ㄷ] 또는 [ㅂ]으로 발음되는 예

- 막동이 → [만똥이]    목다 → [물따](물다)    박치기 → [받치기]
- 국비 → [굴뻐]        택배 → [택뻐]        백보 → [뻐보](뻐보)

② 받침[ㄷ]이 [ㄱ] 또는 [ㅂ]으로 발음되는 예

- 받기 → [받끼](받기)    낫 그릇 → [낫끄릇]    꽃 가루 → [꼴까루]
- 맛벌이 → [맷뻐이]      꽃 배달 → [꼴뻐달]    멋부리다 → [뻐뿌리다]

<sup>3</sup> 促音의 후속음은 일반적으로 무성 자음이 온다. 특수한 경우에는 유음 [l]이 오는 때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5.에서 후술하겠음.

<sup>4</sup> 하기 예는 村木正武・中岡典子(1994)에서 인용.

<sup>5</sup> 하기 ②, ③에서 받침[ㄷ][ㅂ] 예 중의 일부 단어는 한국어의 변자음화 현상으로 인해 받침 발음이 후속 자음으로 동화되어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단어는 의미 소통에 그다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 ③ 받침[ㅂ]이 [ㄱ] 또는 [ㄷ]으로 발음되는 예  
 엮기→ [엮끼](엮기)    잡고→ [잡꼬](잡고)    죽기→ [죽끼](죽기)  
 곱다→ [과따](과다)    낱작→ [낱짹](낱작)    밥 줄→ [받쥬](밥줄)  
 \* ()안은 혼동되기 쉬운 말.

#### 4. 撥音/ン/의 음운과 받침 발음시의 문제점

撥音/ン/은 일본어에서 항상 어중 또는 어말에서 나타나는데 음운 기호로는 /N/로 표시되는 비음이다.

우선 어말(음절말)에서의 발음은 한국인에게는 음절말에서의 [-ㅇ]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는 [-ㄴ]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ㅇ]도 [-ㄴ]도 아닌 그 중간적인 음이라 하겠다. 학습자 들은 후속음이 없을 때의 받침 ㅇ과 ㄴ을 撥音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하기 예에서 보듯이 [-ㅇ]과 [-ㄴ]의 그 어느 쪽 발음도 아닌(한국어에 없는) 중간적인 애매한 음으로 발음되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상/산 サン[saN]                      방/반 판[paN]                      동/돈 톤[toN]  
 기강/기간 키گان[kigaN]    사망/사만 사만[samaN]  
 모방/모반 모반[mobaN]

한편 어중에서는 후속음이 유성 무성의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이 오기도 하는데 撥音의 음은 후속음의 비음으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sup>6</sup>

センポ (千歩: 천 보) /seNpo/ [sempo]  
 センボン (千本: 천 개) /seNboN/ [semboŋ]  
 センマイ (千枚: 천 장) /seNmai/ [semmai]  
 セントー (千頭: 천 마리) /seNto:/ [sento:]  
 センツー (千通: 천 통) /seNtsu:/ [sentsu:]  
 センチャー (千兆: 천 조) /seNtʃo:/ [sentʃo:]  
 センダイ (千台: 천 대) /seNdai/ [sendai]  
 センザイ (千載: 천재) /seNzai/ [senzai]  
 センジ (千字: 천 자) /seNʃi/ [seŋʃi]  
 センネン (千年: 천 년) /seNneN/ [seneē]  
 センリ (千里: 천 리) /seNri/ [senri]  
 センカイ (千回: 천 번) /seNkai/ [seŋkai]

<sup>6</sup> 하기 예는 村木正武・中岡典子(1994)에서 일부 인용했으며, 저자의 표기를 존중하여 어말의 /N/음가를 선행 모음의 비음으로 표기했다.

セングラム (千グラム: 천 그램) /seNguramu/ [seŋguramu]

상기 이외의 후속음[s] 앞에서는 [s]에 역행 동화된 비음으로 발음된다는 설과 撥音의 선행 모음에 순행 동화된 비음으로 발음된다고 보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두 경우의 撥音은 그 어느 쪽도 [ㄴ]음과 유사하게 청취된다.

그리고 후속 모음 앞에서의 撥音의 음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선행 모음 또는 후속 모음과 동화된 비음으로 발음된다는 설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받침 다음에 모음이 오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므로 이 경우에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받침 /ㅇ, ㄴ, ㅁ/의 발음을 학습자 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

받침 발음	후속 자음
ㅇ[n]	[k] [g]
ㄴ[n]	[t] [ʈ] [ʈʰ] [d] [ʈ] [dʒ] [n] [r] [s]
ㅁ[m]	[p] [b] [m]

즉, 3.의 促音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받침 /ㅇ, ㄴ, ㅁ/의 발음에 있어서도 각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거나 근접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학습자 들은 받침 발음을 쉽게 그리고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① 받침[ㅇ]

밍크 민크 [miŋku]    공기 콘기 [koŋgi]    창가 찬카 [ʧaŋka]

② 받침[ㄴ]

안타 안타 [aŋta]    온도 온도 [oŋdo]  
 본때 본때 [poŋte]    난초 난초 [naŋtʃo]  
 안주 안주 [aŋʃu]    한자 한자 [haŋtʃa] (漢字)  
 인사 인사 [iŋsa]    한 쌍 한쌍 [haŋsaN]  
 한 나라 한나라 [haŋna:ra]

③ 받침[ㅁ]

남포 남포 [naŋpo]    남부 남부 [naŋbu]  
 잠버릇 찬폴렛 [ʧaŋpo:ɾʌt]    밤마다 판마다 [paŋma:da]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받침 음과 후속 자음의 조음 위치가 근접하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받침 발음이 잘 안 돼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일부 통하는 경우도 있음.<sup>7)</sup> 아니면 아주 다른 뜻의 단어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된다.

- ① 받침[ㅇ]이 [ㄴ] 또는 [ㄹ]으로 발음되는 예  
 강단→ [간단]      방지→ [반지]      봉사→ [분사]  
 상부→ [상부]      생물→ [생물]

- ② 받침[ㄴ]이 [ㅇ] 또는 [ㄹ]으로 발음되는 예  
 전기→ [정기]      산과→ [상과]  
 간부→ [간부]      문무→ [문무]

- ③ 받침[ㄹ]이 [ㅇ] 또는 [ㄴ]으로 발음되는 예  
 참고→ [창고]      담대→ [단대]      남자→ [난자]  
 봄 날→ [본날]      삼 천→ [산천]      심사→ [신사]

## 5. 받침 발음 교정법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어에서도 한국어의 받침과 같은 폐음절 음 들이 실제로는 상당수 존재하지만, 그 음(변이음) 들은 促音과 撥音이라는 두 가지 특수한 음운 밑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변이음 들이 나타나는 음운 환경이 일본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제한되어 있고, 또한 促音과 撥音의 각 변이음 들은 일본어에 있어서 의미 변별의 기능도 없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들은 변이음 들 간의 음성 차이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침 발음과 유사한 발음 들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지만 일본어에서도 나타나므로 3. 4.에서 언급한 용례 등을 사용해 음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습자 들이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또는 促音과 撥音의 음운 중에서 받침 7 음 /ㄱ, ㄷ, ㅂ, ㅇ, ㄴ, ㄹ, ㄷ/과 거의 같은 음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일본어의 단어 들을 참고로 제시해 두겠다. 받침 발음 확인 겸 발음 연습 용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 하겠다.

- [ㄱ] パック [pakku] (pack)의 파ㄱ-[pak-]  
 [ㄷ] パット [patto] (확: 부사)의 파ㄷ-[pat-]

<sup>7</sup> 하기 예중 받침 [ㄴ][ㄹ]의 예 중에도 변자음화 현상으로 인해 의미 소통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도 있다.

- [ㄷ] パッパト [pappato] (척척: 부사)의 パッ-[pap-]
- [ㅇ] サンカ [san̥ka] (참가)의 サン-[san̥-]
- [ㄴ] サンノ [sanno:] (山王: 신사 이름)의 サン-[san̥-]
- [ㄹ] サンマ [samma] (꽂치)의 サン-[sam̥-]
- [ㄷ] アッラー [alla:]<sup>8</sup> (Allah)의 アッ-[a|l-]

한국어의 받침 7 음에 해당하는 음절말 음 들이 일본어에서도 상기와 같이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용례를 들어가며 지도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 하겠다. 동시에 7 음의 조음 위치(양순, 치경, 연구개)에 대해서도 음성학적 설명을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이 되겠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실제로 학습자 들에게 상기 용례 들의 발음을 천천히 시켜가면서 促音 및 撥音의 음이 후속음 앞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변이음으로 바뀌는 것을 학습자 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즉 학습자 자신이 자기의 促音과 撥音의 조음 위치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기의 促音과 撥音의 음 들은 후속음과 조음 위치가 동일(또는 근접)하다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유효하므로 후속음과 조음 위치가 상이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에는 학습자 들이 받침 발음을 정확히 못 하거나, 또는 후속음 및 후속음의 비음으로 받침을 발음하게 되는 중대한 잘못이 일어난다. 이런 잘못 즉 후속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받침 발음을 정확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령의 발음 연습이 필요하다.

- ① 받침 발음과 후속음 사이에 pause 를 삽입해 발음하면 받침 발음이 후속음의 영향을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한다. 즉, 받침 발음 다음에 짧은 pause 를 넣어 우선 받침을 정확히 발음하고, 그 후에 후속음을 발음하도록 연습시킨다. (천천히 발음 연습을 시킴.)
- ② ①의 연습 효과가 나타나면 후속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받침 발음의 속도를 올려가며 연습시킨다.

상기 연습을 시켜가면 받침 발음이 상당히 향상되어 회화에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는 좋은 발음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

<sup>8</sup> 일본어에서 促音의 후속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무성 자음만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アッラー [alla:] 외에도 アッラーマー! [allama:] (놀랐을 때 내는 소리인 アラ [ara]의 강조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유음 [l]이 오는 때도 있다. 이 때에 중요한 점은 발음 속도인데 /-ッラ/의 발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음 [l]이 잘 실현된다.

이로써 받침 발음의 완성 단계라고는 못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의식 중에서는 일본어 발음 促音과 撥音의 간섭이 언제라도 개입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보에서 중급, 상급으로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상기 연습은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상기 논문은 姜奉植(2006)을 참조한 내용임.

## 참고문헌

- 한재영 외 7인(2003), 한국어 발음교육, 한림출판사.  
이기문 외 2인(1998), 국어 음운론, 학연사.  
오정란(1997), 현대 국어 음운론, 형설출판사.  
배주채(1998), 음절말 평 폐쇄음화에 대하여, 국어학 강좌 4 음운 I, 태학사.  
김주필(1998), 국어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과 음운현상, 국어학 강좌 4 음운 I, 태학사.  
村木正武・中岡典子(1994), 撥音と促音 一英語・中国語話者の発音一,  
講座 日本語と日本語教育 第3巻 日本語の音声・音韻(下), 明治書院.  
杉本つとむ・岩淵匡(1990), 日本語学辞典, 桜楓社.  
佐藤喜代治(1994), 国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今石元久(1998), 日本語音声の実験的研究, 和泉書院.  
天沼寧・大坪一夫・水谷修(1987), 日本語音声学, くろしお出版.  
安藤伸子ほか(1988), 日本語の音声 1・2, アルク.  
杉藤美代子(1998), 日本語の音 日本語音声の研究 3, 和泉書院.  
城生伯太郎(1998), 日本語音声科学, 株式会社バンダイ・ミュージックエンタテインメント.  
姜奉植(1995), 韓国語会話入門, 東方書店.  
姜奉植(2004), 改訂 韓国語入門 1, Language PLUS.  
姜奉植(2005),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들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과 교정법,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姜奉植(2006),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들의 받침 발음의 문제점과 교정법에  
관한 한일 양언어의 음운학적 고찰 연구, 語源研究 第7号, 韓国語源学会.  
姜奉植(2008), なるほど! 韓国語 一文字と発音編一, 研究社.  
梅田博之(2006), NHK 新版 ハングル入門, 日本放送出版協会.  
梅田博之・金東俊(1989), 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 1 入門・会話, 大修館書店.

(岩手県立大学 共通教育センター 教授)

韓国語教育研究 創刊号 (第1号)

2011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姜 奉植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161-853 東京都新宿区中落合4-31-1

目白大学外国語学部韓国語学科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金鉉哲・李善姫・宋貞熹・柳朱燕

印刷所 (株)ENTERPIA PRODUCTION